

“남광주 변전소 부지에 공원 조성을”

의재로 증심사 구간 4차로 확장

남구 진월동 주민들 市에 청원서 제출 내달 철거...남구청, 막대한 예산 고민

광주시 남구 진월동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오랜동안 단지내에 위치해 자신들을 불안하게 했던 한국전력 변전소 부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변전소의 위험 시설물인 고압선 첩탑 등이 이미 옥내 시설로 전환돼 부지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 곳을 공원으로 조성, 열악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월동 주민 420명은 최근 한국전력 남광주변전소 부지(2만9천㎡)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원서를 광주시와 남구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남광주변전소 지상에 설치돼 있던 고압선 첩탑 등의 각종 전기공급 철물들이 대부분 옥내 시설화된 만큼 이 부지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변전소 부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돼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거단지 환경 조성에 활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대표 이진영(70)씨는 “고압선 첩탑 등이 옥내 시설화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많은 전류가 흐르는 변전소로 인해 불안하게 살아왔다”며 “사용 계획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이상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한 남구청 등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부지 매입비와 공원화 등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토지 매입비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까지 짓게 되면 수백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광주 남구 진월동 한국전력 남광주변전소 정문 앞에서 주민대표 이진영씨가 변전소 부지의 공원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변전소내 고압선 첩탑 등은 오는 12월께 철거될 예정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이에 따라 남구청은 한전측이 변전소 부지에 문화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을 짓는데 직접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께 변전소 부지에 남아있던 시설물이 철거되는 만큼 토지 매입비로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한전측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남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부터 변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쉽게 풀 수 없었다”며 “하지만 주민들도 직접 나서고 변전소 시설물도 철거되는 만큼 한전 측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양호 市 보건환경연구 48곳 검사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중이용시설 48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별 유지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보육시설은 총 부유세균이 최고 721.0CFU/m(기준 800CFU/m)로 측정돼 기준에 육박하고, 도서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최고 817.4ppm(기준 1000ppm)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청소나 환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주단지 종점~공원 입구간 923m 착공

증심사 가는 길이 더욱 넓어지고 보행 환경도 쾌적하게 바뀐다.

광주시는 27일부터 의재로 증심사지구 이주단지 종점~공원 입구간 도로(923m) 확장공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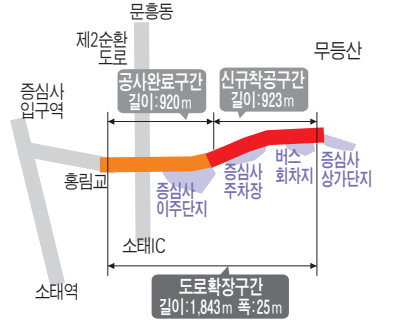
이 도로에는 1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2010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도로 확장은 교통여건을 감안해 ▲이주단지 종점~증심사 주차장 입구는 4차로 ▲주차장 입구~주차장 출구는 3차로(상행 1차로, 하행 2차로)와 녹도(보도를 겸한 숲길) ▲주차장

출구~공원 입구까지는 2차로와 녹도로 조성된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 누구나 걸고 싶은 도심속의 명소를 만들고 자연환경 복원사업지구 전·출입도로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24억원을 투입해 홍림교(배고픈 다리)~이주단지 종점까지 920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무등산보호단체 등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도로에 심어졌던 백나무를 중앙분리대로 활용, 환경친화적 도로로 조성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민간보조금 ‘유리알 관리 시스템’ 대통령상

자치정보화 경진대회

광주시는 “민간보조금 ‘유리알 관리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6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1회 자치정보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인 ‘유리알 관리시스템’은 기존 수기정산

방식이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목적의 사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가 지난해 4천500만원을 들여 개발한 것이다.

민간보조금 지원대상의 공모부터 정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자의 집행내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어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시는 유리알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로 광주은행으로부터 지난해 2천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안수영 회계과장은 “민간보조금 ‘유리알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보급돼 민간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남구청 ‘효 교과서’ 효과 크네

초등생 효 의식 함양·인성 교육에 도움

광주시 남구청이 개발해 보급한 ‘효 교과서’가 초등학생들의 효 의식 고취 및 인성교육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용 효 교과서인 ‘효사랑 생활’을 보급해 교육한 학교와 교육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효 의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한 학생들의 효 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교육청 관내 4개 초등학교 680명에게 ‘효·이웃사랑 실천에 효사랑 생활 수업·교육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3.03점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0.37점 높게 나타났다.

또 ‘동네에서 이웃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질문에서는 교

육을 받은 학생들이 0.34점, 부모님과 대화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0.36점 높았다.

남구청 안기두 효사랑사업팀장은 “효사랑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광주 뿐 아니라 효 교과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효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사랑 생활’ 교과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남구청이 개발한 효행 교과서로 지난 2007년부터 광주지역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1월 김수희 28금 **12월 설운도 11특12금**

호박 나이트 OPEN

광주첨단 · 특스존열

부킹전국 365일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별이 보이는 꿈에 그리던 나이트가 첨단상륙!!